이희은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기계만 그러하지는 않겠으나 '기계는 권력의 지도'라는 하라웨이의 말을 제목으로 올리신 부분은 이 발제문의 시의적절함과 의미와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로 화려한 그림이 그려지고 색이 입혀지고, 만약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년 사이클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IoT가 그랬고 빅데이터가 그랬고 스마트 시티가 그랬나싶고, 지금은 로봇과 AI가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 차원에서는 숨가쁜 현장의 급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뒷짐 지고 관망할 여유는 인문학적 허세일 수 있구요. 그렇다고 손 놓고 놀 수도 없는 일이니 치열한 사유의 훈련이 게을러져서는 안될일 같습니다.

이번 발제문은 인문사회학자 입장에서 AI의 기술적 시스템과 장밋빛 전망이 생산되는 메커니즘의 빈 곳을 짚는 동시에, AI 시스템 아래에서 왜곡되기 쉬운,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 구현해야하는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인류적, 사회적 가치의 건강한 생산과 순환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방향으로 밀려가는 AI기술을 데이터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그 데이터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AI를 논할 때 항상 함께 언급하는 개념이자 행위인 '데이터 큐레이팅', 즉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성숙하고도 모으고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전략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생산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다고 여겨져서입니다. 그 작업의 권한과 의무를 유연하면서도 엄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작업을 의미있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지성적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인문적 상상력과 엄중한 통찰이 기술적 발전과의 관계에서 어렵게나마 균형을 잡아 나아갈 수 있을까? 비단 데이터 큐레이팅 작업 말고도 인간과 기술은 서로에게 맞는 진화의 속도를 솜씨있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과 고민에 동행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논의나 논지에 대응하는 일보다는, 최근 들어 저에게 던져지는 숙제들이 발제문을 읽는 과정에서 다시 주어지는 것을 느꼈기에 이것으로 질문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도 복합적이고 판명불가능한 문제들과 잡종적인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사회를 삽니다. 따라서 개념의 정립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대응해야하는 구체적 사례들에 집중하는 노력과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제문이 제시하는 사례들은 우리가 섬세히 들여다봐야하고, 겹겹이 쌓인 모순과 이율배반적 사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문제적 사례가 있고 그것을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비판적 분석 과정의 전통적, 일반적 흐름이었다면, 너무도 빠른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유의 프로세스는 바로 그 사례들을 진부하지 않은 시선으로 찾고,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적 사례가 툭하고 던져지면 그것에 대한 인문사회적 진단과 전망을 내어놓는 작업은 항상 늦고 과녁을 벗어납니다. 이제 사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부하지 않은 지성적 감각과 통찰로 문제와 사례를 참신하게 '발굴'하는 역량과 안목이 이젠 중요한 지성적 덕목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술의 속도에 끌려가지않고, 학제적 굴레에 묶여 효과 없는 우물안 진단만 내어놓는 헛발질이 다소 줄 것 같습니다. 진부한 사례의 관습적 대면은 진부한 진단을 만듭니다. 진부한 사례에서 남다른 통찰을 빚어내는 일이 귀한 지적 역량이듯, 이제 우리들은 나름의 성찰을 위해 참신한 사례들을 사유의 장으로 순발력있게 입력하는 일들을 더 부지런히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미래와 대면하는 지성이 애쓰고 실패하며 조금씩 써나가는 통찰의 연습이고 안목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